

월요광장

지역 자립의 길



이상민  
광주대 교수

모든 지자체는 지역을 상징하는 꽃을 가지고 있다. 담양군의 군화는 매화고, 화순군은 들국화다. 각 고장이 군화처럼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 특색 있고 개성적인 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의 많은 도시들은 나름대로 고유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옥스퍼드, 살리넨베리, 삿포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다. 우리도 자기 고장을 타전으로, 세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 스스로가 꽃이 되어 별과 나비를 불러 모아 지역살림을 알차게 하고,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지가 필수요소다. 주민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강성두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며칠 전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2만 명이 넘어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협회에 등록을 한 모든 변호사는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2004년 즈음에 등록된 제1차 철천 몇 번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니 약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난 것 입니다. 2만 번 대 등록번호사는 인구 50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인구 2500명당 변호사가 1명이 있는 셈이며 어린이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변호사 1명인 시대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아시아 시피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인을 양성해 온 기존의 시스템이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 및 폐쇄화를 초래한다는 반성과 함께 다양한

기고



김충경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군가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군가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해마다 노벨상 문학상 후보로 오르고 있는 고은 시인이 쓴 가사에 김민기가 곡을 붙인 ‘가을 편지’다.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감미롭게 느껴진다면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뜻인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지역 자체가 스스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서, 향기가 멀리까지 진동하여 많은 별과 나비가 찾아 날아오는 아름다운 꽃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들고나는 사람과 기업들이 지역의 꽃과 어우러져, 열려있으면서도 개성적인 문화가 피어나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꽃을 피우기에는 우리 지역의 자율과 자립능력은 아주 취약하다. 지방에는 경제력과 인재가 없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제각기 따로 논다. 하지만 이제 지방이 스스로 제기하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변화상을 보여줘야 할 때다. 먼저 각론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미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래에서, 천천히,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지역 생태계 조성은 ‘자기이의 쟁기에서 상호 협조하기’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자체장, 공무원, 주민, 학교, 기업 등 각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찾고, 자율적인 역량을 키우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 가운데 자립적인 지방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집단은 기업들이다. 그런데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동네마다 1개 이상의 기업을 갖게 하는 1천

변호사 2만명 시대

영역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로스쿨 제도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잘 부합하여 실시되고 있는 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인이 되기 위한 소모적인 시간이 이전보다 단축되고 절대적으로 적었던 법률가의 수가 파격적으로 증가한 공적은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현재 변호사 시장에 새로 나오는 인력이 연간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률문화와 경제적 여건, 우리나라의 특징인 다양한 법조유사지역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변호사 수 자체만으로 적고 많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급증하는 변호사의 수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와 명예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온 변호사 자격증이 치열한 취업난과 수임 경쟁 속에 살고 있는 현재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얘기 가 된지 오래입니다. 늘어나는 변호사의

가을엔 문화예술여행 떠나세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노랫말의 아름다움과 유려한 선율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여전하다. 노랫말처럼 흐르는 누군가에게라도 문득 편지를 쓰고 싶을 만큼 감수성이 충만해지는 낭만의 계절이 올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긴 편지를 대신하는 요즘, 안부를 묻기 위해 편지를 쓰는 이는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안부편지를 받으며 설레던 기억, 누군가에게 밤새 쓴 편지를 붙이지 못한 채 주머니에 오랫동안 넣고 다녔던 일은 이제 추억이 됐고 편지에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보낸다는 주옥같은 말들도 허공 속에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다름’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화다. 이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바로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에서 나온다. 깊어가는 가을, 문화로 감성을 충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다

1사 운동을 전개해, 소규모의 자생적, 자립적, 향토적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돼야 한다. 무관심으로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기업도 있다. 기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제품 우선 구매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자율의 시대에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보유한 인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유능한 인재일수록 지역에 붙잡아두는 걸 지역발전의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대학 교수들은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시켜 지역의 앞날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민들 스스로도 힘을 길러야 한다. 이젠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일을 결정해야 된다. 효율적이어서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외국에서 최고의 지자체장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바로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의 힘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미야기현 지사나,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 시장 등과 같은 분들의 등장을 우리 지역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해경, 진도 VTS 근무체계 개선 말뿐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무사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해경의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170여 일이 다대가도록 근무체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무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연안 VTS 현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진도 VTS에 설치된 CCTV는 자진 철거 이후 아직까지 재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 CCTV는 지난 6월 5일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 근무 태만 등을 감추기 위함의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한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선임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저하되는 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는 그스란히 이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확대에 따른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단순하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직업이주의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신고 함께’라는 웹툰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사후 49일만 지옥을 가느냐 천당을 가느냐를 가름하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사후세계에서도 망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능력 있고 의뢰인을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를 만난 만화의 주인공처럼 저도 사후에 능력 있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지금 의뢰인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공덕’을 쌓아야겠습니다.

무 등鼓

1519년(중종 14년)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는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며 벼슬길에 나선 ‘개혁파’ 젊은 선비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정암 조광조를 필두로 한 신진 사립파는 훈구파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미처 ‘왕도(王道)정치’의 이상을 펴보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는 등 화를 입은 선비 159명을 ‘기묘명현’(名賢)이라 일컫는다. 이 가운데 광양 출신 신재 최산두(1483~1536) 선생도 37세의 한창 나이에 화순 동북으로 유배를 오게 된다. 그는 동북천 상류인 장랑천에 자리한 크고 작은 절벽의 경관을 보고 중국 양쯔강변에 있는 적벽에 비견한다 해 ‘적벽(赤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고 전해진다. 이때 하서 김인후 등 많은 이들이 유배지를 찾아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배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된 때는 15년만의 일이다. 그 뒤 풍류시인 목객들이 이곳에 들러 음탕하면서 수려한 적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읊었다.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에 있고(無等山高松下在)/ 적벽강이 깊다

지역의 자립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에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개성 있는 고유의 향기를 지닌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에 의해 결정되면 주민들은 결정에 승복하고 스스로 개척한 운명에 대해 후회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모여 협력하면서 지역혁신을 논의하는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각자는 취약하지만, 협력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고, 해결책도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 관, 기업, 민간단체 간에 서로 융합하며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 시급한 게 구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공동체 형성이다. 연고와 정실에 자유롭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갈등 요인이 되는 이권, 정치적 성과와는 무관한 일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려한 말로,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주변의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동아리와 같은 취미공동체를 끌어안아 공공적 이슈와 연결하는 동시에 공동마케팅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신뢰는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경제적 사업도 성공하기 힘들다.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정신이 필요하다.

해경, 진도 VTS 근무체계 개선 말뿐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무사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해경의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170여 일이 다대가도록 근무체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무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연안 VTS 현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진도 VTS에 설치된 CCTV는 자진 철거 이후 아직까지 재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 CCTV는 지난 6월 5일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 근무 태만 등을 감추기 위함의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한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선임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저하되는 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는 그스란히 이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확대에 따른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단순하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직업이주의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신고 함께’라는 웹툰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사후 49일만 지옥을 가느냐 천당을 가느냐를 가름하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사후세계에서도 망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능력 있고 의뢰인을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를 만난 만화의 주인공처럼 저도 사후에 능력 있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지금 의뢰인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공덕’을 쌓아야겠습니다.

해경, 진도 VTS 근무체계 개선 말뿐인가

지역의 자립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에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개성 있는 고유의 향기를 지닌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에 의해 결정되면 주민들은 결정에 승복하고 스스로 개척한 운명에 대해 후회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모여 협력하면서 지역혁신을 논의하는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각자는 취약하지만, 협력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고, 해결책도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 관, 기업, 민간단체 간에 서로 융합하며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 시급한 게 구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공동체 형성이다. 연고와 정실에 자유롭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갈등 요인이 되는 이권, 정치적 성과와는 무관한 일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려한 말로,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주변의 작은 일부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동아리와 같은 취미공동체를 끌어안아 공공적 이슈와 연결하는 동시에 공동마케팅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신뢰는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경제적 사업도 성공하기 힘들다.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정신이 필요하다.

社說

도시철도 2호선 논란 광주시 책임 크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 논란으로 갈등을 빚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광주시가 시장 취임 100일 이전에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르런 열을 후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통수요를 과다 계상한데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태스크포스(TF)팀이 최근 교통수요를 재검토한 결과, 2호선 완공 시점인 오는 2025년 1·2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4만 7천769명으로 추정치 31만9천752명보다 7만1천983명이 줄었다. 교통분담률도 12.07%에서 10.30%로 1.77%P 낮아졌다. 교통수요와 분담률을 늘려 잡은 것이다. 또 태스크포스팀이 내놓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2호선 건설에 힘이 실린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시가 2호선 미건설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버스 증차를 제시

했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든 예상 적자에 별반 차이가 없어 원안인 건설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는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들어 결정기로 했지만 세부 방법을 추후 정하기로 한데다 TF팀 내에서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이견이 커진 통에 예상된다. 게다가 재검토 논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0년 넘게 진행해온 2호선 건설문제는 운장현 시장 취임 이후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는 점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원안대로 정리되면 혼란만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여론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호선 건설이 교통수요와 재정 적자라는 양면성이 상존한 만큼 효율과 실리 측면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해경, 진도 VTS 근무체계 개선 말뿐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무사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해경의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170여 일이 다대가도록 근무체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무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연안 VTS 현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진도 VTS에 설치된 CCTV는 자진 철거 이후 아직까지 재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 CCTV는 지난 6월 5일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 근무 태만 등을 감추기 위함의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한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선임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저하되는 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는 그스란히 이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확대에 따른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단순하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직업이주의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신고 함께’라는 웹툰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사후 49일만 지옥을 가느냐 천당을 가느냐를 가름하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사후세계에서도 망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능력 있고 의뢰인을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를 만난 만화의 주인공처럼 저도 사후에 능력 있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지금 의뢰인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공덕’을 쌓아야겠습니다.

광역립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관제사 인력 부족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사고 이후 기존 인력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을 증원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기준 대비 61%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1개 관제사 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리다 보니 진도 VTS는 부족한 인력에 임무는 많고 여론의 감시마저 집중되면서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리 ‘안전 대한민국’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공복(公僕)들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를 피할 길이 없다. 해경은 당장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진도 VTS 근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직해체 갈등에 매몰돼 또다시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519년(중종 14년)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는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며 벼슬길에 나선 ‘개혁파’ 젊은 선비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정암 조광조를 필두로 한 신진 사립파는 훈구파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미처 ‘왕도(王道)정치’의 이상을 펴보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는 등 화를 입은 선비 159명을 ‘기묘명현’(名賢)이라 일컫는다. 이 가운데 광양 출신 신재 최산두(1483~1536) 선생도 37세의 한창 나이에 화순 동북으로 유배를 오게 된다. 그는 동북천 상류인 장랑천에 자리한 크고 작은 절벽의 경관을 보고 중국 양쯔강변에 있는 적벽에 비견한다 해 ‘적벽(赤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고 전해진다. 이때 하서 김인후 등 많은 이들이 유배지를 찾아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배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된 때는 15년만의 일이다. 그 뒤 풍류시인 목객들이 이곳에 들러 음탕하면서 수려한 적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읊었다.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에 있고(無等山高松下在)/ 적벽강이 깊다

타니 모래위로 흐르는구나(赤壁江深沙上流) 팔도강산을 떠돌던 방랑시인 ‘김사갓’(본명 김병연·1807~1863)이 화순 적벽에 본 후 지은 시다. 광주시와 화순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30여 년간 출입이 통제된 ‘적벽’(전남도 기념물 제60호)을 개방하기로 했다. 운장현 광주시장과 구종근 화순군수는 10월 6일 적벽 개방에 따른 협약서를 교환한 후 23일에는 현장에서 개방행사와 함께 적벽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985년 동북천 하류에 동북담이 들어서며 물에 잠긴 ‘조선 10경’(景)의 하나를 가까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광조 문하에서 글을 배운 ‘소쇄옹’ 양산보의 소재원과 ‘숙세에 물들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은 물영정(勿染亭)~이서 적벽~능주 조광조 선생 저려유취지로 이어지는 광주·전남 연계 관광코스도 개발할 만하다. 앞으로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이 상생발전을 위해 자주 머리를 맞닿으면 좋겠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화순 적벽**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8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